# 전주만의 정체성 살린 플랫폼 구축

## 전주시, 도시재생 세미나 개최… 새로운 도시 발전방향 모색

전주만의 정체성을 살린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플랫폼을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은 6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전주시 도시재생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도시너머연구소, 김광수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이 함께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전주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 정치권의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전성환 원장은 '새로운 지역 플랫폼의 탄생'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좋은 공간이 좋은 활동을 만들어내고, 그런 활동들은 커뮤니티를 강화시켜준다"며 "한옥마을 살리기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매력을 가진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봉건시대와 근대,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유산, 음식, 소리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를 가진 전주에서 농수산물도매센터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역플랫폼 만들기의 신기원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엔나 도나우강의 수변개발계획인 도나우인젤 사업이나,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영국 뉴캐슬 화이트헤드의 세이지음악당과 밀레니엄브리지 등 매력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담대한 도시계획들이 현재 관점에서는 성공모델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 당시 해당도시 내에서는 수많은 논쟁이 야기되고 정치적 결단들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들이었다"며 "어떠한 담보도 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건축가와 계획가, 정치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힘에 의해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원장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지역과 마을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지역과 마을에 무한한 애정을 쏟는 것이야 말로 그러한 지역(마을)을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며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지역의 재구성을 위한 힘은 결국 자신들의 지역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도록 꿈꾸며 상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우연 전주시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전주시 도시재생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민선6기 전주시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도시재생 정책 구상(안)을 발표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해외 도시 혁신 사례에서 도출한 키워드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건축·도시 분야 키워드 등을 종합해 △행복 △생태△재생 △참여 △지역화의 5가지를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표키워드로 도출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 도시재생 정책 목표인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해 필요한 △주민 주도성 △통합적 재생 △창조적 재생 등 3가지 기본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또, 전주를 원도심권역과 동부권역, 중부권역, 북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설명한 뒤, 근대산업유산 활용 문화예술벨트(북부권역), 4대문 주변 역사도심(원도심권역), 서학동 미래유산 마을재생(원도심권역) 등 도시재생 핵심거점 구상안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현숙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도시너머연구소 정책위원장)를 좌장으로 손영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과 김창환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국장, 채가을 건축사(도시너머연구소 연구위원), 박혜숙 전주시의회 의원이 참가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김영재 기자

# 전북경찰청 총경 3명 배출

박정환 총경

최홍범 총경

송승현 총경

전북경찰청이 소위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총경 3명을 배출했다.

이번 총경 승진인사에서는 전북경찰청 박정환(51·간부후보 44기) 강력계장과 최홍범(50·경찰대학 5기) 경무계장, 송승현(47·경찰대학 8기) 정보3계장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박정환 총경 승진 내정자는 남원 출신으로 2007년 경정으로 승진했으며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장, 김제경찰서 수사과장, 전북경찰청 강력계장 등을 역임했다.

최홍범 총경 승진 내정자는 장수 출신으로 2007년 경정으로 승진했으며 진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전주완산서 경비교통과장, 전북경찰청 경무계장 등을 역임했다.

3명 중 가장 젊은나이에 총경 승진 내정자가 된 송승현 계장은 2008년 경정으로 승진했으며 익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전북경찰청 정보3계장 등을 지냈다.

/김민근 기자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도와주세요"

### 전주시의회, 도민 서명운동
### "지역경제 파탄 막아야"

전주시의회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촉구하기 위한 범도민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전주시의회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촉구하기 위한 범도민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시의회는 6일 서노송동 세이븐존 앞 광장에서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 100만 서명 운동'을 펼쳤다.

이날 의원들은 "도내 조선산업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군산조선소의 존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의회는 "군산조선소는 전북 수출물량의 9%를 차지하고 약 65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지는 등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대중공업이 단순히 경제논리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구조 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반대 이유를 담은 호소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전북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으며 시민들은 군산조선소 존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명에 동참했다.

김명지 의장은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크 가동중단 등 근시안적인 구조 조정이 아닌 최소한의 선박건조 물량의 지역적 안배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이한수 전 익산시장 보석 석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6일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시장이 지난 10월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허가결정을 내렸다. /김민근 기자

#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 진범 구속기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6일 진범 논란이 있어왔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A(35세)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최근 무죄 판결이 확정된 C에 대한 재심재판 과정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수사를 병행한 결과, A씨가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군산지청은 재심 사건 무죄 선고 즉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에서 생활하던 A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구들에게 과시 목적으로 조작했던 이야기를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강도살인을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부검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활동 공유

### 공감대 형성 · 네트워크 구축 계기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들의 올 한 해 운영성과를 뽐내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9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300여명의 온두레 공동체 회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2016 온두레 공동체사업 활동 공유회'를 개최한다.

전주시 공동체사업 추진 2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활동해온 온두레 공동체 회원들이 활동사항 공유를 통해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연계를 통한 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63개 공동체 회원들은 그간 각 공동체별로 추진해왔던 사업 성과물을 토대로 공예와 문화, 교육·환경, 공유·장터, 식품, 홍보, 마을 등 7개 분야 모둠별 준비 과정을 거쳐 공동체로 연계된 협업 전시회를 진행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활동사진과 작품을 전시하는 '공동체 갤러리' △2016 공동체 한마당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동화나래연구소의 전주설화 인형극 공연 △2016년 공동체 활동 사례 발표 등이다.

또한, 이날 주 행사장인 도시혁신센터 다울마당은 기성세대에게는 젊은 날의 향수를 불러오고, 젊은 세대에게는 색다른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70~80년대 음악다방 분위기로 연출된다.

/김영재 기자

# 오토바이 상습절도범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한 A씨(21,남)를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0월 15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돼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잠금장치 해제 후 절취하는 등 4회에 걸쳐 오토바이 4대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 금암실버열정축제 개최

전주시 금암노인복지관은 6일 덕진예술회관에서 '티브로드와 함께하는 제12회 금암실버열정축제'를 개최했다.

금암실버열정축제는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전주시장상 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사업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또,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종합미술품과 사진, 서예 작품 등이 전시됐다. /김영재 기자